

# 축산소식\*



## ■ '한우펀드' 로 부자되세요



▶오른쪽부터 유병덕 마이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남영우 NH투자증권 대표, 남경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김기범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신강식 지리산순한우 협의회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한우펀드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9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롯데마트·마이에셋자산운용·지리산순한우 브랜드사업단 등과 국내 최초의 한우 공모펀드 양해각서(MOU)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 펀드는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을 통해 판매되며 예상 수익률은 연 7% 정도다.

▶농민신문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최종편집 : 2007년 9월 12일]

## ■ 농협, 유우군능력 검정사업 실태조사 실시

축발기금 보조금 지급 대상우 기준으로 시·군이 주관 농협중앙회는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림부와 합동으로 전국 29개 검정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9월17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은 한미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젃소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에서 수행하여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젃소의 혈통관리, 능력 검정, 유전능력 평가, 우수 종축 선발 및 계획 교배의 연쇄적 반복 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젃소개량의 핵심사업이며,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군 및 농협중앙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젃소검정사업 참여 농가의 개체관리 현황, 검정참여 여부, 참여조합의 사업 추진을 일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자금집행의 적정을 기하여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조사표본은 조합당 전체 참여두수의 20% 정도이며 농림부와 농협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검정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오세관 부장은 “개방화 시대에 낙농가가 경쟁력을 높여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검정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낙농을 경영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므로서 많은 낙농가가 유우군검정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와 지원에 최대한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at@livesnews.com

[최종편집 : 2007년 9월 15일]

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부와 종개협은 지난해 말 2007년도 종돈MMA 배정을 위한 신청량 접수 및 수요조사 결과 수입희망량이 크게 증가하자 MMA 기본량 1천 8백50두에서 1천1백50두가 많은 3천두로 증량한 바 있다.

종개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종돈선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일반 비육농장에서 종돈수입을 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돈수입량은 MMA기본량을 다소 웃도는 2천~2천2백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종돈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은 농장신축이나 사육규모 확대를 계획했던 일부 대형농장들이 올해 종돈수입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MMA 물량 운용에 여유가 생겼지만 비육농장에 대한 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비육농장의 종돈수입이 종돈개량을 도모하면서도 수입으로 인한 국내 종돈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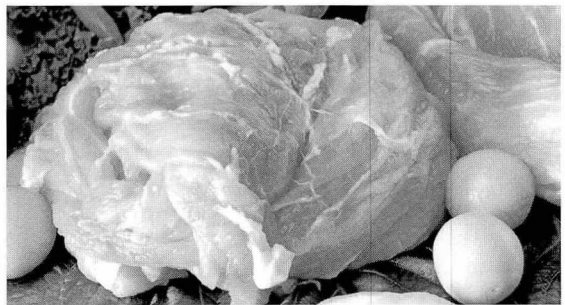
## ■ 올 종돈수입 예상량 크게 밀릴 듯

8월까지 9백82두...전년동기 보다 21.8% 줄어

MMA 3천두로 증량 불구 2천두대 도입 전망

올해 종돈수입이 당초 예상량을 크게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중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종돈수입은 미국산 70두, 기타 30두 등 모두 1백두 (22만4천3백3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들어 8월까지 수입된 종돈은 총 9백82두, 금액은 1백93만9천7백95달러 규모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백55두(2005년도 연말에 수입, 2006년 통관 프랑스산 종돈 2백55두 제외)와 비교해 21.8%가 감소한 것으로 올해 종돈수



# 축산소식\*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MMA 기본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고 국내에서 물량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L21ho@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7년 9월 5일]



## ■ 가금류, 추석물량 기대 힘들어...

육계시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내내 산지대닭기준 kg당 840원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던 육계가격이 지난 14일 940원으로 올랐지만 더 이상의 상승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약보합세이거나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계협회의 표본농가 조사에 따르면 병아리 입추물량을 기준으로 이번 주 시장에 출하될 육계물량은 전년동월대비 9%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렇다 할 소비가 없어 가격은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량 때문에 육계가격이 한차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추석물량을 미리 구매한 곳이 많아 그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계란의 경우에는 지난해 환우계군 등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계군이 늘어나면서 특란이 부족해 한차례 인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4일 수도권 특란기준 112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번주에 들면서 명절전 유통상인의 계란 물량확보가 끝나고 나면 대체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약보합세이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

▶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nirvana@afnews.co.kr  
[최종편집 : 2007년 9월 18일]



## ■ '고능력 우량 여왕벌' 폭발적 인기

꿀 채취능력 뛰어나고 근면... 150~200% 증산효과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종봉 '충주호' 보급 나서 새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남해중)에서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능력이 월등히 우수한 고능력 여왕벌을 확보하여 대구꿀벌연구회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양봉농가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품종을 사양하여 꿀벌이 잡종화 되어 꿀 채취 능력이 떨어지고 봉산물 생산에 한계가 있어 농촌진흥청과 독농가에서 공동개발한 꿀 채취능력이 우수하고 질병에 강한 우량종봉인 '충주호' 40마리를 2006년에 구입하여 대구꿀벌연구회와 인근 농가에 보급했다. '충주호'는 순계 및 잡종강세를 이용하여 육중한 꿀벌로 꿀 채취능력과 근면성이 뛰어나고 병해충에도 강한 흑색계통의 꿀벌이다. 2006년 이 충주호 종봉 40마리를 여왕벌 생산에



경험이 많은 연구회원 18명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들이 여왕벌을 증식시켜 회원 60명에게 점차적으로 보급하여 금년까지 여왕벌을 전원 교체 할 계획이며 인근 양봉농가에서도 우량종봉을 조기에 교체해 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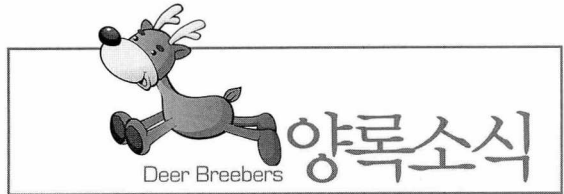
지난해 '충주호'를 공급받은 회원 중에 이를 모체로 순계 및 잡종강세를 이용하여 '팔공산 1호'를 개발하여 인근 회원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이들의 벌꿀 및 봉산물 생산능력은 국내 기존 사육품종과 비교하면 지역적 환경과 사육기술, 채밀 방식에 따라 150%~200%의 증산 효과가 있다.

또 아카시아 폭밀기에도 분봉열이 적게 발생하여 덧통 관리가 용이하고 습성이 매우 온순하여 봉군 관리가 편리하고 채밀하기가 쉬우며 병해충에도 매우 강하여 양봉농가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구꿀벌연구회원과 양봉농민들을 대상으로 고능력 우량종봉을 2008년까지 교체를 하고, 꿀벌인공수정장비를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꿀벌 인공수정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이 좋은 수벌과 원하는 품종의 여왕벌을 인공수정시켜 능력이 우수한 꿀벌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며, 완숙된 고품질 벌꿀과 봉산물을 활용한 로얄젤리, 포로폴리스를 활용하여 웰빙 천연식품을 생산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독농가에서 공동 개발된 초음파발생 진동자를 이용하여 벌통에 병해충을 손쉽게 방제하여 노동력 절감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꿀벌해충 자동방제기를 금년부터 20대를 회원 농가 위주로 보급하고 점차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양봉 농가에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라이브뉴스 도나희 기자 [최종편집: 2007년 9월 3일]



## ■ 양록자조금 2008년 사업 올해의 2배

양록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올해의 2배 규모인 2008년 사업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양록자조금 사업 규모는 총 2억원으로 올해대비 100% 증액됐으며 농가 거출 목표액은 1억원이다. 20일 현재 농림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 2억원의 사업계획(안)은 78%가 국산 녹용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이며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이 18%, 기타 운영비가 4%이다. 강준수 한국양록협회장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양록자조금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봤다”며 “현재 수준의 2배에 달하는 농가거출금 1억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올해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08년도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MBC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 '여성시대'에서 국산 녹용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광고가 올해 양록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최종편집: 2007년 9월 27일]